滿文資料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硏究

申 相 賢*

<목 차>

1. 머리말
2. 일기의 시간별 구성
  2.1 강희 19년(1680) 庚申年
  2.2 강희 20년(1681) 辛酉年
  2.3 강희 21년(1682) 壬戌年
3. 주요 내용의 분석
  3.1 전투 상황의 묘사
  3.2 八旗軍의 병영 생활과 滿州族의 풍속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청나라 초에 일어난 삼번의 난에 참가한 曾壽가 기록한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먼저 전체 일기의 내용과 그 구성을 검토하였고, 주요 전투 장면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한문 기록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팔기군의 병영 생활과 만주족의 풍속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는 만주 문자로 기록한 일기로 원제목은 "beye i cooha bade yabuha babe ejehe bithe(내가 전쟁터에서 행한 바를 기록한 글)"이다. 주요 내용은 八旗軍에 소속된 曾壽(?-1711)〔增壽로도 표기한다〕가 三藩의 亂 진압에 참가하여 1680년 1월 31일부터 1682년 11월 10일까지의

www.kci.go.kr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쟁 상황이나 군사적 사항, 그리고 자신의 소회 등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 曾壽는 만주족으로 성은 동고(donggo, 棟鄂, 董鄂) 씨이고, 만주팔기 正紅旗人이다. 아버지는 一等公爵 펑춘(pengcun, 朋春 혹은 彭春)이며, 강희 38년(1699)에 아버지가 죽자 칙명으로 三等公爵을 세습하였다. 이후 강희 41년(1702)에 正黃旗 漢軍副都統이 되고, 43년(1704)에는 鑲藍旗 滿州副都統이 되었으며, 강희 50년(1711)에 죽는다.[1] 일기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는 簡親王 라부(labu, 喇布)[2]에 속한 八旗軍[3]이었으며, 강희 13년(1674)에 康親王 기여수(giyesu, 傑書)[4]를 따라 삼번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종군하였다가[5] 난이 평정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일기를 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지위가 鑲藍旗에 소속된[6] 參領의 위치에

1) 吳忠匡 등 교정, ≪滿漢名臣傳≫,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703쪽 참조.

2) 라부(labu, 喇布) : 청 태조의 조카인 지르갈랑(jirgalang, 濟爾哈朗)의 둘째 아들 지두(jidu, 濟度)의 첫째 아들로 封號가 簡親王이다. 강희 13년(1674)에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揚威大將軍에 임명되어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그러나 南昌에 주둔하면서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전을 거듭하다가 강희 19년(1680)에 柳州에서 일으킨 馬承蔭의 반란을 물리쳤다. 이어 대장군 라이타(laita, 賴塔)와 함께 雲南으로 진공하였으며, 강희 20년(1681)에 북경으로 소환되어 그 해에 죽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吉安에서 적을 물리칠 기회를 놓친 것과 규율을 어기며 군사를 움직인 것으로 인해 작위가 삭탈되었다.(≪淸史稿≫ 列傳二 諸王一, 참조.)

3)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康熙 21년(1682) 7월 24일에, "7월 24일에 …… 우리 왕의 일로 인하여 라사이, 어허너, 마시타이(masitai, 馬西泰), 劉賢忠 등 旗의 章京들을 모이게 하고, 모자의 술을 자르고, 3일을 애도하며 밤을 새웠다.(orin duide …… musei wang ni baita i turgunde, lasai, ehene, masitai, lio hiyan jung se gūsai janggisa be isabufi, boro i sorson be gaifi, ilan inenggi gasame dobori duliha.)"라는 내용으로 볼 때에는 簡親王 라부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4) 기여수(giyesu, 傑書) : 청태조의 둘째 아들 禮親王 다이샨(daišan, 代善)의 손자로 封號가 康親王이다. 강희 13년(1674)에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大將軍에 임명되어 耿精忠의 반란군을 평정하였고, 이어 강희 15년(1676)부터는 남쪽 해안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鄭經을 토벌하기 시작하여 厦門, 金門, 銅山 등을 수복하고 鄭經을 台灣으로 쫓아버렸다. 강희 36년(1698)에 죽었다.(≪淸史稿≫ 列傳二 諸王一, 참조.)

5)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康熙 19년(1680) 5월 5일에, "5월 초닷새에 康親王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北京으로 돌아갔다고 듣고, '내가 康王을 따라 나와서 도리어 (함께) 돌아갈 수 없구나' 하고 번민하였다.(sunja biyai ice sunja de, elhe cin wang ni beye cooha gaifi, beging ni baru bederehe seme donjifi, bi elhe wang be dahame tucifi, elemangga bahafi bedererakū seme gusucehe.)"는 내용을 볼 때에는 康王〔康親王 기여수(giyešu, 傑書)를 가리킴〕을 따라 나온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6) 상게서, 康熙 20년(1681) 1월 21일, "대장군이 鑲藍旗가 밤 새워 고생했다며 漢人 안내자를 한 명 붙여주어서, 이틀 동안 지름길로 80리를 갔다.(amba jiyanggiyūn kubuhe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그리고 일기는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네 번째 권이다.[8]

이 일기는 1970년대 말에 中央民族學院 도서관에서 季永海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다. 季永海 교수는 만주어 원문을 로마자로 전사하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하여 1987년에 中央民族學院出版社에서 ≪隨軍紀行譯注≫로 출판하였다. 季永海 교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 뉴욕에서 Nicola Di Cosmo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The Diary of a Manchu Soldi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My Service in the Army"로 출판하였으며[9], 2012년에는 최동권 등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로 출판하였다.[10] 현재까지 이 문헌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서 열거한 번역본을 출판할 때에 실린 해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체 일기의 내용과 그 구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요 전투 장면의 묘사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으며, 일기에 나오는 팔기군의 병영 생활과 만주족의 풍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lamun dobori dulime joboho seme, gajirtai nikan emke bufi, juwe inenggi dokolome jakūnju ba yabuha.)"라는 내용으로 볼 때, 鑲藍旗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7) 상게서, 康熙 19년(1680) 8월 29일, "28일에 參領이 충분하다 하여 나를 그만두게 하였다.(orin jakūn de jalan i janggin fulu seme mimbe nakabuha.)"라는 내용과, 康熙 20년(1681) 9월 11일의"11일에 參領 파푸리(fafuri, 法福里)를 兵營長로 임명할 때, 나를 대장군이 보고 잘란 이 장긴으로 임명하였다.(juwan emu de jalan i janggin fafuri be kūwaran i da sindara jakade, mimbe, amba jiyanggiyūn tuwafi, jalan i janggin sindaha.)"라는 내용으로 볼 때, 당시에 참령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상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군대에서 행한 일을 기록한 글. 네 번째 권(cooha de yabuha be ejehe bithe duici debtelin)"라고 되어 있어 원래 4권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9) Nicola Di Cosmo, *Diary of a Manchu Soldi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My Service in the Army*, by Dzengšeo(Routledge Studies in the Early History of Asia), Routledge, 2006.

10) 이 작업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어 강독팀이 주축이 되어 2010년 6월부터 강독을 시작하여 2011년 1월말에 1차 번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년여 간에 걸쳐 번역문의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만주어로 된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용어에 대한 고증 작업을 거쳐 2012년 5월에 博文社에서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로 출판하였다. 필자도 처음부터 이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출판에 즈음해서는 해제를 집필하였다.(졸고,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에 대하여>,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 서울: 博文社, 2012, 참조.)

2. 일기의 시간별 구성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는 강희 19년(1680)부터 강희 21년(1682)까지의 3년 동안 삼번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매일 기록하고 있다. 일기의 주요 내용은 당시의 전쟁 상황, 상부의 명령, 전투 장면의 묘사, 군대의 이동과 그 경로, 군량과 軍馬의 부족, 병영 생활과 풍속, 민간의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의 구성과 내용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해 볼 수 있다.[11]

2.1 강희 19년(1680) 庚申年

강희 19년(1680)은 庚申年이나 본문에서는 '己申(sohon bonio)'으로 되어 있다.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29일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3월 6일에 賓州의 知州 馬承蔭이 다시 배반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과 망기투(manggitu, 莽依圖) 장군이 사망한 내용, 그리고 운남을 공격하러 가기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고, 11월 15일에 南寧府를 출발하여 西隆州까지 가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마승음의 반란군 진압과정을 보면, 南寧府를 출발하여 賓州 → 陶鄧 → 江口 → 象州 → 來賓縣을 거쳐 7월 14일에 다시 남녕부로 돌아오는데, 도등에서 마승음의 군사 1만 여명을 맞아 크게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남녕에 돌아온 후 망기투 장군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것은 망기투 장군이 6월 10일에

11) 제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필자가 집필한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의 해제에 해당하는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에 대하여>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삼번의 난을 토벌하는 전체 기간 가운데 3년 동안을 기록한 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주요 사건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강구에서 10발 넘는 큰 구렁이를 죽인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즉 '구렁이〔蟒〕'는 '망기투(manggitu, 莽依圖)'의 '망(mang, 莽)'을 뜻하기 때문에 죽이게 되면 장군에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연관을 시키고 있다.

망기투 장군을 대신하여 10월 10일에 병부에서는 도통 라이타(laita, 賴塔)를 南征大將軍으로 삼아 운남으로 쳐들어가라 하고, 북경으로부터 지원군도 도착하였다. 11월 초에는 內閣學士 어쿠리(ekuri, 額庫禮)와 남정대장군 라이타가 모두 남녕에 도착하여 운남으로 진격할 계획을 짜고 군대를 재편성하였다. 11월 5일 밤에는 서쪽 하늘에 20발이 넘는 유성이 나타나 상서로운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1월 15일에 남녕부를 출발하여 武緣縣 → 田州 → 那標 → 砦馬塘 → 朱久塘 → 延陽塘을 거쳐 12월 21일에 西隆州에 도착한 다음, 紅水河 상류의 다른 이름인 八渡河에 부교를 세우게 하였다. 부교가 완성되자 29일에 출발하였다.

2.2 강희 20년(1681) 辛酉年

강희 20년(1681) 辛酉年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20일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신유년의 주요 내용은 운남성으로 진격하면서 黃草垻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내용과 운남성을 포위한 채 약 9개월 동안 대치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오세번의 자살로 적이 항복한 후의 처리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다시 西隆州에서 출발하여 交水州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월 초하루에 西隆州를 출발하여 八渡河의 부교를 건너고, 石門坎 → 班敦滕 → 安籠所 → 馬別河 → 黃草垻 → 黃泥河 → 大雲南堡 고개 → 亦佐縣 → 黃河山 → 越州 → 曲靖軍民府을 거쳐 交水州에 이른다. 이 중에 1월 23일 馬別河에서 적이 黃草垻를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월 2일에 적을 공격하여 크게

www.kci.go.kr

이기고, 코끼리 5마리를 얻고, 적장 王有功과 詹養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曲靖軍民府의 지부 李朝貴가 천 명 남짓의 적을 거느리고 항복해 오고, 曲靖을 지나 交水州의 창고에 있던 5만 섬의 쌀을 취하고 3일 간 머물렀다. 交水州에서는 귀주로부터 도착한 버이서(beise) 장타이(jangtai, 彰泰)의 군사와 합류하여 운남성으로 쳐들어가는데, 交水州 → 馬龍州 → 易龍 → 關索嶺 → 楊林) 거쳐 2월 22일에 운남성 근처의 歸化寺가 있는 산에 도착하여 영을 세운다.

운남성을 포위하고 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3월 3일부터 성을 막아 에워쌀 해자를 파기 시작하여 5월 23일에 이르면 세 겹으로 해자를 파게 된다. 그리고 운남성을 에워싸는 梅花樁 말뚝을 박고, 17일에 滇池湖의 호숫가를 따라서 땅을 나누고 운남성의 물길을 끊는다. 지원군도 도착하여 8월 24일에 도통 가르간(gargan, 噶爾干)이 사천의 建昌府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西安府의 부도통 웅가이(unggai, 翁盖)가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9월 9일에는 勇略將軍 趙良棟 등이 사천성의 綏義府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하였다. 10월 29일에 적의 장군 線絨・何進忠・吳國柱・黃明・林天擎 등이 성을 바치며 투항하고, 장군 郭壯圖가 吳世璠의 머리를 바치러 왔다.

운남성을 함락한 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11월 2일에 오세번의 궁녀들과 재화, 적 장군들의 여자와 아이들 및 재화를 조사하여 몰수하였다. 11월 11일에는 나이 든 부녀자들과 잡다한 비단과 옷 등의 물건을 팔기의 관군에게 주고, 다음 날에는 비단도 주었다. 24일에 나는 열흘 동안 성의 외곽을 지키고, 성문을 호군참령 로비(lobi, 羅粥)가 지켰다. 대포의 화약 한 통이 터져서 성 동쪽 3칸의 집과 검문소의 사람 10명이 형체도 없이 날아갔다. 12월 17일에 이르면, 병부에서 철수와 관련된 글을 보내오고, 20일에 시위・병부의 관리・복무한 지 오래된 군사 200명을 보내고, 死體를 맡겨 북경으로 출발시켰다. 이어서 전체 군사를 8대로 편성하여 새해의 정월 10일에 출발시키기로 하였으나 투항한 적의 관리들이 갈 수 없다고 항의하여 중지하였다.

www.kci.go.kr

2.3 강희 21년(1682) 壬戌年

강희 21년(1682) 壬戌年 정월부터 10월 12일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월 6일에 운남성을 출발하여 북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주위의 풍광과 경로, 도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북경에 가까워질수록 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잘 그려내고 있다.

먼저 북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두 8대로 편성된 군사를 출발시키기 전에 병부에서는 투항한 적에게 식량과 옷을 주지 말고 빨리 데려오라고 재촉하는 글을 보내오고, 적은 뇌물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였다. 물가가 모두 오르고, 약탈과 도둑질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마침내 2월 6일에 버이서 등의 제1대부터 출발하여 1차로 荊州府까지 가게 되는데, 黔陽縣에서부터는 수로로 가서 5월 22일에 荊州의 肖家灣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거의 석 달을 머물면서 운남을 출발한 나머지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놀며 좋은 음식을 먹고 오직 집에 간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그리고 집에서 보낸 하다푼(hadafun, 哈達分)과 산다리(sandari, 三達里)를 맞이하며, 만창(mancang, 滿常)을 시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러 보냈다.

〔육로〕

楊林 → 易龍 → 馬龍 → 小關索嶺 → 曲靖府 → 交水州 → 白水驛 → 平夷衛 → 亦資孔 → 江西坡 → 對面坡 → 普安州〔八仙洞〕 → 新興所 → 安南衛 → 蓮雲城 → 瀘水江 → 波洵嶺 → 象鼻嶺 → 關索嶺 → 鷄公背 → 安順府 → 平坝衛 → 平義所 → 威清衛 → 貴陽府 → 龍里衛 → 新添衛 → 平越府〔張三風 祠堂〕 → 清平縣 → 重安江 → 興隆衛〔飛雲洞〕 → 偏橋 → 鎭遠府 → 辰河江 → 清浪衛 → 平溪衛 → 晃州 → 辰河 → 邊綏驛 → 辰河江 → 沅州府

www.kci.go.kr

〔수로〕

沅州府 → 黔陽縣 → 坡石 → 辰州 → 常德府 → 牛鼻灘 → 老虎灘 → 淸浪灘 → 展茂 → 馬金河 → 上水河 → 僧石 大鎭村 → 荊州府 虎渡口 → 肖家灣

8월 10일에 호군통령 시거(syge, 斯格)의 제6대의 군사가 마지막으로 이르자, 8월 28일에 육로와 수로로 가는 것을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게 하였다. 29일에 대장군은 여러 병영장과 장경들을 거느리고, 소 8마리를 죽여 흙으로 크게 만든 단에 제물을 바치며, 큰 깃발에 절하고 고동을 불면서 제사지내고 고기를 묻었다. 그리고 군사를 출발하여 북경으로 향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육로로만 이동한다.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西坡 → 龍背 → 荊門州 → 石橋驛 → 麗驛 → 宜城縣 → 襄陽府 → 檀溪江 → 瀏陽驛 → 新野縣 → 南陽府 → 臥龍崗)〔諸葛亮 祠堂〕 → 博望驛 → 裕州 → 保安驛 → 葉縣 → 襄城縣 石固鎭 → 新鄭縣 郭店驛 → 鄭州 滎澤縣 → 黃河 → 新鄕縣 → 衛輝府 → 淇縣 → 宜丘驛 → 湯陰縣 → 彰德府 → 邯鄲縣 → 褡褳店 → 順德府 → 尹村 → 趙州 → 坡沱河 → 福城驛 → 明月店 → 慶都縣 → 保定府 → 安肅縣 → 定興縣 → 琉璃河의 莊園 → 良鄕縣 → 長辛店 → 北京의 盧溝橋 → 집

돌아오는 도중인 10월 9일에 대장군에게 알리고, 집에서 소유한 琉璃河의 莊園에 가서 쉬면서 큰형을 만나고, 껴안고 울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전하며 밤을 새웠다. 황제는 난을 진압한 공로를 위무하기 위해 버이서에게 御馬 2마리, 대장군에게 御馬 2마리, 무잔・가르간・히퍼 등에게 말 1마리씩, 전체 章京과 군사를 큰 무리의 말 300마리와 낙타 30마리로 맞이하였다. 또 10월 12일에는 몸소 首輔大臣들을 거느리고, 長辛店 넓은 터에 차양을 치고서 대장군・참찬대신들・장경・군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집이 있는 나는 盧溝橋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갔다.

www.kci.go.kr



〈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삼번의 난 주요 진압 경로[12]〉

3. 주요 내용의 분석

3.1 전투 상황의 묘사

일기에는 역사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주요 전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賓州의 陶登에서 馬承蔭군을 맞아 싸운 전투나 曲靖

www.kci.go.kr

12) 졸고,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에 대하여>,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 서울: 博文社, 2012, 16면에 실린 그림 재인용.

府와 羅平州를 연결하는 요지인 黃草垻를 빼앗기 위한 전투, 그리고 운남성을 에워싸기 전에 치룬 전투 등은 실제로 눈앞에서 전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들 전투 상황을 일기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강희 19년(1680) 3월 6일에 賓州의 知州 馬承蔭이 다시 배반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다.[13] 이에 망기투(manggitu, 莽依圖) 장군은 13일에 都統 히퍼(hife, 希福)와 護軍統領 어허너(ehene, 額赫訥)에게 한 니루(niru)에 호군 3명씩과, 綠旗軍 5,000명을 주어 마승음을 토벌하기 위해 賓州로 출발하게 한다.[14] 曾壽는 망기투 장군과 뒤따라가서 합류하고, 4월 19일에 賓州 부근의 陶鄧이라는 곳에 營을 세운다.[15] 그리고 5월 16일에 馬承蔭 휘하의 장군 馬承烈과 饒一龍, 운남에서 온 적의 장군 范齊韓과 詹養이 만 명이 넘는 적을 거느리고 싸우러 다가와서는 陶登 지역에 거마작・방패・조총・코끼리 네 마리를 배치하고 확전해 오자 군사를 거느리고 맞아 싸우는데[16], 그 때의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13)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康熙 19년(1680) 3월 6일, "bin jeo i jy jeo hafan ma ciyang yen be ubašaha seme nurhume boolanjiha."
같은 내용이 ≪淸史稿≫ 本紀六, 聖祖本紀一, 康熙 19年 三月辛丑에서는, "馬承蔭誘執傅弘烈. 先是, 馬雄踞柳州, 死其子, 承蔭以柳州降. 至是複叛, 執弘烈送貴陽, 不屈死之. 平南將軍賴塔複銅山, 命守潮州備承蔭."라고 기록되어 있다.

14) 상게서, 康熙 19년(1680) 3월 13일, "juwan ilan de jiyanggiyūn mang gūsai ejen hife, tui janggin ehene de emu nirui ilata bayara, dahame dailara sunja ing ni sunja mingga niowanggiyan tu cooha be bufi, neneme ubašaha hūlha ma ciyang yen be dailame bin jeo baru jurambuha."

15) 상게서, 康熙 19년(1680) 4월 19일, "juwan uyūn de bin jeo i bira be doofi, tofohon ba yabufi, ša moo san i ebele too deng sere bade ing iliha. bi orhoi tatan araha."

16) 상게서, 康熙 19년(1680) 5월 16일, "tofohon de ubašaha hūlha ma ciyang yen i fejergi holo jiyanggiyūn ma ciyang liyei, žao i lung, yūn nan ci jihe hūlha i holo jiyanggiyūn fan ci han, jan yang uheri tumen funcere hūlha be gaifi, ing be afanjime hanci latunjifi, too deng ni bade, hiyahan kalka miyoocan sufan duin be faidafi ambarame jihe be, jiyanggiyūn mang ing toome emu janggin, juwan uksin be werifi, uheri amba cooha be gaifi tucifi, ……."

(망기투 장군이) "정면에는 히퍼(hife, 希福), 마시타이(masitai, 馬西泰)가 제2대의 군사를 인솔하여 포진하라. 우익에는 어허너(ehene, 額赫訥)가 제1대의 군사를 인솔하여 포진하라. 좌익에는 러버이(lebei, 勒貝)가 翼隊의 군사를 인솔하여 포진하라."고 지시하고, 綠旗軍을 앞에 세우고 전진하면서 포를 쏘았다. 적이 곧 돌진하여 육박해오니, 녹기군이 견딜 수 없어서 동요하여, 正黃旗와 正紅旗가 반으로 나뉘어져 입구 지역을 넘겨주었다. 적이 모두 한 무더기로 돌진해 와서 부대를 나누어 퇴각할 때 보니 右翼 쪽으로 밀려서 鑲藍旗가 적의 거마작 가까이에 가서 멈추었다. 적의 排槍部隊가 콩 볶는 것처럼 쏜다. 또 제1대의 군사가 코끼리에게 부딪치게 되어 鑲黃旗의 護軍章京 왈다(walda, 瓦爾達)의 旗와 驍騎兵의 驍騎校 울러히(ulehi, 吳勒喜)의 기가 이끌게 하였다. 코끼리가 휘몰아 제2대의 군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우리 여럿이 쏠 때에, 화살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코끼리에 맞아서 산으로 도망쳐갔다.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였다. 적은 평지에서 줄어들어 산의 우거진 숲에서 대오를 편성하고, 밤이 될 때까지 대치하며 거마작을 배치하고 있었다. 우리 군사도 공격하지 않고 營으로 돌아와 성가퀴를 견고하게 지켰다.[17]

짧은 문장이지만, 馬承蔭의 반란군과 이를 진압하려는 토벌군이 현재 어떠한 양상으로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돌진해 들어오는 반란군과 이를 막아서는 토벌군의 밀고 밀리는 교전 상황, 그리고 그 틈으로 휘몰아 오는 코끼리, 그 코끼리를 향해 화살을 쏘아 산의 숲속으로 쫓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마침내 대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결코 ≪淸史稿≫와 같은 정사의 기록에서는

17) 상게서, 같은 곳, "cin i dere de hife, masitai be jai meyen i cooha be gaifi faida. ici ergi šaksiha de ehene uju meyen i cooha be gaifi faida. hashū ergi šaksiha de lebei šaksiha meyen i cooha be gaifi faida seme afabufi, niowanggiyan tu be juleri sindafi, ibeme poo sindame, hūlha uthai fondolome latunjifi, niowanggiyan tu alime muterakū aššame, gulu suwayan gulu fulgiyan juwe hontoho fakcame angga ba buhe. hūlha bireme emu dalgan i fondolofi, baksalafi bedererede, tuwaci jebele galai baru siribume, kubuhe lamun hūlhai hiyahan i hanci ilinaha. hūlhai piciyang turi tashara adali sindambi. tuwaci uju meyen i cooha sufan de birebufi, kubuhe suwayan i bayara janggin walda tu, aliha cooha i funde bošokū ulehi i tu gaibuha. sufan halgime jai meyen i cooha de nikenjihe be, meni geren i gabdara de, sirdan sengge bula i adali, sufan de hadara jakade, sufan burulame alin i baru genehe. mini dolo faijeme seme gūnime tuksitehe. hūlha necin baci ikūme, alin i luku bujan de kurelefi, yamjitala bakcilame hiyagan faidafi bihe. musei cooha inu afahakū, ing de bederefi, keremu be akdulame tuwakiyaha."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18]

망기투 장군은 이날 밤에 2백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적 가까이 가서 한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고동을 불며 적을 놀라게 하자 적장 范齊韓·詹養·馬承烈 등이 17일 밤에 도망을 치게 된다. 망기투 장군은 이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투항한 자는 모두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다.[19] 2만에 가까운 적을 크게 격파하여 죽이고, 코끼리 네 마리·纛·旗·포와 조총을 많이 취했다고 한다.[20]

(2)

다음은 黃草垻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黃草垻는 '黃草壩'라고도 표기한다. 雲南府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南寧府에서 雲南府로 가기 위해서는 '南寧府 → 西隆州 → 安籠所 → 黃草垻 → 羅平州 → 越州 → 曲靖府'를 거쳐야 하는데, 黃草垻 귀주성에서 호남성으로 넘어가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반란군의 입장에서 黃草垻는 광서성의 南寧府로부터 오는 진압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曾壽 일행은 康熙 19년(1680) 11월 15일에 대장군 라이타

18) ≪淸實錄≫의 ≪康熙朝實錄≫ 康熙十九年 庚申, 六月 壬午條에는, "揚威大將軍和碩簡親王喇布疏報, 臣與將軍莽依圖總督金光祖等, 率滿漢官兵, 分路進剿馬承蔭. 五月初四日, 金光祖統兵敗賊于武宣, 遂夏縣城. 初八日莽依圖兵, 大敗賊于陶登. 乘胜前進, 遂定象州. 臣兵于初四日, 至雒容縣, 卽進取柳州. 十七日, 馬承蔭率僞文武官弁六百六十余員, 兵七千三百餘名, 詣軍門降. 柳州平."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기와 비교해 볼 때 전투가 벌어진 날짜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19)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康熙 19년(1680) 5월 16일, "juwan ninggun i yamji jiyanggiyūn mang ni beye juwe tanggū siliha cooha be gaifi, hūlhai hanci genefi, ergide kaicame, cargide burdeme hūlha be burgibuha. hūlhai holo jiyanggiyūn fan ci han, jan yang, ma ciyang liyei se juwan nadan i dobori burulaha. gerke manggi, jiyanggiyūn mang ing de emu nirui emte cooha be werifi, amba cooha be gaifi farkahade, bi genehe bihe. hūlhai amcabufi dahahangge, jiyanggiyūn gemu waha akū sindaha."

20) 상게서, 같은 곳, "juwe tumen isire hūlha be ambarame gidafi waha. juwan ninggun i dobori hūlha burulafi, fargame amcafi ambula waha. sufan duin, tu kiru poo miyoocan ambula baha seme wesimbuhe."

www.kci.go.kr

(laita, 賴塔)가 군대를 이끌고 남녕부를 출발하여 田州를 거쳐 12월 21일에 西隆州에 도착한 다음, 29일에 紅水河 상류의 다른 이름인 八渡河를 건넌다. 그리고 다음 해인 康熙 20년(1681) 1월 17일에 安籠所에 다다르고, 27일부터 黃草垻의 반란군과 대치하다가 2월 2일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하게 된다. 曾壽는 黃草垻에서의 전투 전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월) 초이틀에 대장군이 영을 지키는 滿州兵 400명과 綠旗軍 1,000명으로 하여금 유인하게 하고, 정면에서 맞서 대적하면서 翼隊를 參贊大臣 어허너(ehene, 額赫訥)와 마치(maci, 馬齊)에게, 제1대를 參贊大臣 히퍼(hife, 希福), 홍실루(hūngsilu, 宏世祿)와 허르부(herbu, 赫爾布), 副都統 마시타이(masitai, 馬西泰), 漢軍의 祖志春에게, 제2대를 都統 러버이(lebei, 勒貝), 한군의 趙璉 등에게 군사를 맡겼다. 그리고 녹기군을 앞쪽에, 滿州兵을 뒤쪽에 네 겹으로 배열시키고 방패와 창을 잡게 하여 적의 營 뒤쪽 좁은 산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갑자기 안개가 끼어 가까운 사람도 서로 볼 수가 없었다. 산의 입구에서 적이 대비하지 않았고, 우리 군사가 쳐들어가니 포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우리가 가져간 방패를 버린 것이 길에 뒤엉켜있다. 내가 纛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산의 입구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적이 영에서 나와서 거마작과 방패, 코끼리를 배치하고, 우리 녹기군를 향해 공격한다. 포와 조총 소리가 콩 볶는 것처럼 땅을 흔든다. 우리 녹기군 샤후리(šahūri, 沙呼里)가 부상을 얻었으나, 한 번에 움직여서 바로섰다.

우리의 제1대와 翼隊가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갈 때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적이 버틸 수 없어 패하여 도망칠 때, 내가 纛을 거느리고 적을 죽이며 산의 적 진영에 접근해 가니, 적이 성가퀴 구멍에서 조총을 쏜다.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 말을 탄 적을 5리 넘게 몰아내며 죽였다.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때에, 보니 주검이 어지럽게 들판에 깔려 있고 피가 땅에 흐른다. 적 진영에 포, 조총 등의 무기가 좋고 나쁜 것 없이 뒤섞여 남겨져 있었다. 코끼리 5마리를 얻었다. 사로잡은 적장 王有功, 詹養에게 물으니, 적의 가짜 장군 何繼祖, 王宏勛, 趙玉, 王宏擧, 巴啓生, 張廣新, 劉世貞 우리 아홉 명은 모두 2만이 넘는 적을 거느리고, 曲靖府와 羅平州의 중요한 길인 黃草垻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21]

21) 상게서, 康熙 20년(1681) 2월 1일, "ice juwe de amba jiyanggiyūn, ing be tuwakiyara duin tanggū manju cooha, emu minggan niowanggiyan tu cooha be yarkiyabume, cin i dere de bakcilabufi, šaksiha meyen de hebei amban ehene, maci, uju meyen de hebei amban hife, hūngsilu herbu, meiren i janggin masitai, ujen coohai dz'u jy cun, jai meyen de gūsai ejen lebei, ujen coohai joo liyan sede cooha be afabufi, niowanggiyan tu be juleri, manju cooha be amala duin ursu faidabufi, kalka gida

일기에 의하면, 黃草坝는 지형이 험하고, 들어가는 길이 좁아 쉽게 공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장군은 적을 평지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 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綠旗軍을 전면에 배치하고, 八旗軍을 두 부대로 나누어 뒤쪽에 네 겹으로 배열시켜 공격하도록 한다. 반란군이 쏘는 포와 조총 사이로 땅이 무너지는 듯이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가자 적은 도망치고, 적장 王有功와 詹養을 붙잡는 전공을 세우게 된다. 이것 역시 전체 전투 과정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그림이 흘러가듯이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전투 결과로서 얻은 전리품을 열거하고, 사로잡은 적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3)

康熙 20년(1681) 2월 18일 광서성 남녕부로부터 온 曾壽가 속한 라이타(laita, 賴塔) 부대와 귀주성을 거쳐서 온 장타이(jangtai, 章泰) 부대의 토벌군은 마침내 반란군의 초후 근거지인 雲南城에 도착한다. 그리고 대장군은 다

---

jafabufi, hūlhai ing ni amargi narhūn alin i jugūn be gaime iberede, gaitai talman talmafi hanci niyalma be ishunde saburakū. alin i angga de hūlha belgehekū, musei cooha dosifi, pooi jilgan be lakcarakū donjimbi. musei gamaha kalka be waliyahangge jugūn de hiyahahabi. bi tu be gaifi feksime genefi, alin i anggai dolo dosifi, tuwaci hūlha ingci tucifi, hiyagan kalka, sufan be faidafi, musei niowanggiyan tu baru afambi. poo miyoocan i jilgan turi tashara adali, na durgembi musei niowanggiyan tu šahūri feye bahafi, emu jergi aššafi tomsoho. musei uju meyen, šaksiha meyen kaicame dosirede, na ulejere gese, hūlha alime muterakū, gidabufi burulara de, bi tu be gaifi, wame alin i ing de nikeneme, ing ni hūlha keremu sangga ci miyoocan sindambi. ebšeme alin ci wasifi, moringga hūlha be sunja ba funceme bošome waha. cooha be bargiyafi bederere de, tuwaci giran hetu undu bigan de sektefi, senggi nade eyembi. ing de poo miyoocan ahūra hajun ehe sain jaka be hiyahame waliyahabi. sufan sunja baha. jafaha hūlhai jiyanggiyūn wang io gung, jan yang de fonjici, hūlhai holo jiyanggiyūn ho gi dzu, wang hūng siyūn, joo ioi, wang hūng gioi, bakišeng, jangguwang siyan, lio ši jen meni uyun nofi, uheri juwe tumen isire hūlha be gaifi, kioi jing fu, loo ping jeo i oyonggo jugūn i hūwang dzoo ba be tuwakiyame bihe seme alambi."

같은 내용이 ≪淸史稿≫ 本紀六, 聖祖本紀一, 康熙 20年 二月己丑에서는, "大將軍賴塔師至廣西, 大破賊于黃草壩, 複安籠, 入曲靖."라고 기록되어 있고, ≪淸實錄≫의 ≪康熙朝實錄≫ 康熙二十年 辛酉, 三月 甲子條에는, "征南大將軍都統賴塔疏報, 賊將何繼祖等, 自石門坎敗遁, 至新城所, 會僞將軍詹養等, 率衆二萬人, 据黃草壩, 驅象迎敵. 臣于二月初二日, 分布滿漢官兵, 自卯戰至未, 賊大敗. 奪其營二十二. 生擒僞將軍詹養, 王有功, 及賊衆千餘人, 獲象馬无算."로 기록되어 있다.

음 날 성에서 7리 밖의 산을 따라 營을 세우고, 밤을 새워 성가퀴와 해자를 만들게 한다.[22] 이러한 조치는 운남성을 포위한 다음, 기회를 보아 공격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21일에 반란군이 雲南城을 나와 공경해 오게 되어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21일에 적이 밤에 운남성에서 나와 공격해오는 것을, 대장군이 모든 대군을 거느리고 대적하여 영에서 나와 배치시키고 전진하여 싸울 곳을 살펴보고, 翼隊에게 영을 지키게 하였다. 제1대의 군사에게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라 하고 지시하였다. 綠旗軍이 앞서서, 제2대의 군사가 뒤이어서 정면으로 쳐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제1대는 반대로 적의 후미를 차단하며 성 쪽으로 빈곳을 찾아 쳐들어갔다. 우리의 녹기군이 적을 향해 공격하고, 砲와 鳥銃 소리가 '두두두' 하고 끊임이 없고, 귀에 익은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 적의 반은 이동하고, 또 몇 부대는 이동하지 않고 굳게 지키며 죽도록 싸운다. 우리 제2대의 군사들이 모두 이동한 적을 쳐서 들어갔다.
>
> 參贊大臣 히퍼(hife, 希福)가 鑲紅旗와 우리 旗를 불러서, 다리 진지를 점령하고서 이동하지 못하는 몇 부대의 적을 쳐라 하고 지시하였다. 우리 두 기가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해 쳐들어가니, 포, 불화살, 排槍에 견디지 못한다. 무너진 담의 은신처에서 두 기가 한 곳에 뒤섞여 있을 때, 나 홀로 강가에 서서 보니, 우리 군사들이 계속 부상을 당한다. 히퍼가 사람을 보내와서 '걸어서 쳐들어가라'고 하고, 마침 화살을 쏠 때에 적의 후방 부대가 어지러이 흩어진다. 내가 즉시 기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적의 뒤를 쫓아 쳐들어가니, 적이 도망쳤다. 내가 쫓아가서 여러 적에게 투항하라고 하니, 모두 무릎을 꿇고 무기를 버리고 살려달라고 한다. 호군이 적 하나를 쏘니, 모두 일어나 달아났다.
>
> 두 명의 적이 버려진 長劍을 가지고 '죽어라' 하고 베며 쳐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말을 박차며 채찍질하여 높은 강기슭에 올라갔다. 뒤를 보니 갑병 덩서(dengse, 登色)가 강기슭을 오르지 못한다. 적이 쫓아오며 베려 할 때, 덩서가 놀라서 몸을

22) 상게서, 康熙 20년(1681) 2월 18일, "juwan jakūn de kalka ara, niowanggiyan tu isinjiha manggi, hoton be afambi seme selgiyehe. juwan uyun de amba jiyanggiyūn ilan meyen i amba cooha, beise i cooha be gaifi, elhe ibeme orin ba yabufi, gui hūwa sy alin de wesifi, cooha be faidabufi, tuwaci hoton akdun afaci ojorakū. cooha be gocifi bedereme, hoton ci nadan bai dubede, alirame ing ilifi, dobori dulime keremu ulan weile seme selgiyefi, bi jalan i cooha be gaifi, dobori keremu sahame ulan fetehe. guwangsi goloi nan ning fu, yūn nan i hoton i siden juwe minggan tofohon ba funcembi."

기울일 때 화살, 동개, 말꽁무니가 베였다. 덩서가 떨어졌다. 내가 그 적을 쏘아 떨어지게 하였다. 또 다른 적 하나는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살펴보니 덩서는 부상당하지 않았다. 서둘러 旗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죽이며 성 아래 도착해서 보니, 적이 성 밑에 겹겹으로 두텁게 정렬하여 방비하고 있다. 성 위에서 포를 쏜다. 군사를 거두어들이는 고둥 소리를 듣고 우리 군사가 모두 철수하였다.[23]

반란군이 밤에 운남성에서 나와 공격해오자 대장군은 翼隊에게는 영을 지키게 하고, 팔기군 제1대에게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가게 하고, 정면에는 綠旗軍

23) 상게서, 康熙 20년(1681) 2월 21일, "orin emude hūlha dobori yūn nan i hoton ci tucifi afanjiha be, amba jiyanggiyūn uheri amba cooha be gaifi, okdome ingci tucifi faidabufi ibeme, afara babe tuwafi, šaksiha meyen be ing be fiyanjilabuha. uju meyen i cooha be šasilame dosi seme joriha. niowanggiyan tu i cooha be juleri, jai meyen cooha amala cin i dere be dosi seme joriha. uju meyen elemangga hūlhai uncehen be meiteme, hoton i baru untuhun be baime dosika. musei niowanggiyan tu, hūlhai baru afame, poo miyoocan i jilgan dur seme lakcarakū, šan ureme ambula goidaha. hūlha emu dulin aššafi, jai, emu udu kuren aššarakū teng seme bucetei afambi. meni jai meyen i cooha yooni aššaha bata be gidame dosika. hebei amban hife, kubuhe fulgiyan, musei gūsa be hūlafi, tere aššara unde udu guren i kiyoo gašan be ejelehe bata be gida seme joriha. meni juwe gūsa kaicame afame dosifi, poo, cu niru, paiciyang de hamirakū. efujehe fu i dalda de, juwe gūsa emu bade fumerefi bisirede, bi emhun birai dalin de ilifi, tuwaci musei cooha niyalma embudei feye bahambi. hife niyalma takūrafi, yafahan dosi seme jing sirdan jafara burgin de, hūlhai amargi baksan sumburšambi. bi uthai tu be gaifi, bira be doofi, hūlhai amargi be sundalame dosirede, hūlha burulaha. bi amcanafi, geren hūlha be daha serede, gemu niyakūrafi, agūra waliyafi, ergen be guwebu sembi. bayara emu hūlha be gabtara jakade, gemu ilifi sujuhe. juwe hūlha waliyaha jangkū be gaifi buceki seme sacime dosinjiha. bi ekšeme morin be dabkime šusihašame, den ekcin de tafaka. amasi tuwaci uksin dengse ekcin be tafame muterakū. hūlha amcame jifi sacirede, dengse golofi beye haidarara jakade, sirdan jebele, morin i karhama sacibuha. dengse tuheke. bi tere hūlha be gabtame tuhebuhe. geli emu hūlha be we waha be sarkū. tuwaci dengse hūwanggiyahakūbi. ebšeme mini tu be gaifi, bošome wame hoton dade isinafi tuwaci, hūlha hoton dade jursu fik seme faidafi belhehebi. hoton i ningguci poo sindambi. cooha bargiyara buren i jilgan be donjime, musei cooha uthai yooni amasi bederehe."

같은 내용이 ≪淸史稿≫ 本紀六, 聖祖本紀一, 康熙 20年 二月乙巳에서는, "貝子彰泰大將軍賴塔將軍蔡毓榮先後入滇. 賊將胡國柄劉起龍迎拒, 官軍分擊敗之, 斬國柄起龍."라고 기록되어 있고, ≪淸實錄≫의 ≪康熙朝實錄≫ 康熙二十年 辛酉, 三月 己巳條에는, "定遠平寇大將軍固山貝子章泰, 征南大將軍都統賴塔, 綏遠將軍湖廣總督蔡毓榮等, 各疏報, 臣等統兵, 先后至云南省城, 營于歸化寺. 二月二十一日, 賊吳世璠遣僞將軍胡國柄等, 率馬步兵萬餘人, 出城列象陣拒戰. 臣等率滿漢兵, 分隊進擊. 自卯至酉, 大敗賊衆. 追至城門, 陣斬僞將軍胡國柄劉起龍及僞總兵九員, 生擒六百餘人, 獲甲仗旗幟馬匹无算."로 기록되어 있다.

을 앞세우고 팔기군 제2대를 그 뒤에 배치하여 적을 맞아 싸우게 하였다. 이에 제1대는 적의 후미를 차단하며 성 쪽으로 빈곳을 찾아 쳐들어가고, 녹기군이 정면에서 적을 향해 공격하고, 제2대는 이동하는 적을 향해 공격해간다.

參贊大臣 히퍼(hife, 希福)가 鑲紅旗와 증수의 旗로 하여금 이동하지 못한 반란군을 공격하게 하지만, 무너진 담의 은신처에 두 기가 한 곳에 섞여 적의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강가에서 본다. 반란군을 향해 화살을 쏘자 후방부대가 어지러이 흩어지고, 그 틈을 타 기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공격해 들어가 투항할 것을 종용한다. 그 때에 두 명의 적이 버려진 長劍을 집어서 달려들어 갑병 덩서(dengse, 登色)의 화살・동개・말꽁무니를 칼로 베자 덩서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활을 쏘아 죽였다. 반란군을 운남성 밑으로 몰아 죽이면서 가니, 성 밑에 겹겹으로 두텁게 정렬하여 방비하고 있고, 성 위에서는 포를 쏜다. 마침 군사를 거두어들이는 고둥 소리를 듣고 모두 철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이 일기에는 ≪淸史稿≫나 ≪淸實錄≫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한 편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장에 직접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여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있다. 일기라는 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일기를 기록한 曾壽의 문학적 표현력에 기인하는 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일기는 역사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전쟁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2 八旗軍의 병영 생활과 滿州族의 풍속

www.kci.go.kr

일기 가운데에는 八旗軍의 병영 생활과 풍속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일기가 쓰인 시점이 康熙帝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일기의 시간 순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 康熙 19년(1680), 庚申年 정월 초하루. 망기투(manggitu, 莽依圖) 장군이 參贊大臣들, 모든 章京들, 그 지역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廣西省 南寧府의 東岳廟에 모여서 참배하였다. 대신들과 두 줄로 늘어선 관리들이 서로 예를 하였다. 새해 초에 팔기의 장경과 군사들은 모두 먹고 마시며, 호군 갑병이 길거리에서 여자처럼 몸을 꾸미고, 大秧歌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나의 마음은 (고향의) 노친들을 생각하며 근심하였다.24)

비록 전장이지만, 만주족의 새해 풍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장군을 중심으로 휘하의 將領들과 지역의 관리들이 모여 東岳廟에 참배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東岳廟는 도교에서 숭상하는 泰山의 산신인 東嶽大帝를 모시는 사당을 가리킨다. 태산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신성시한 곳으로 이곳의 산신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 시켜주는 사자로서 국가의 안녕과 수명장수, 인간의 복록과 귀천, 생사와 귀신 등을 통괄한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으로 중국 각지에 동악대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해마다 음력 3월 29일에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大秧歌 노래'는 만주족 秧歌의 일종이다. 매년 신년 초 혹은 길일에 남녀 복장을 한 두 사람이 서로 상대가 되어 마당 한가운데에서 춤을 추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秧歌'라고 한다. 吳振臣이 강희 60년(1722)에 쓴 ≪寧古塔紀略≫에서는 이것을 '莽式'이라고 하고 '男莽式'과 '女莽式'이 있으며, '두 사람이 서로 상대가 되어 춤을 추고 旁人은 박수를 치고 노래'하며, '매해 새해나 혹은 기쁘고 경사스러운 때에 행

24)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康熙 19년(1680) 1월 1일, "elhe taifin i sohon bonio juwan uyuci aniya, aniya biyai ice inenggi, jiyanggiyūn manggitu, hebei ambasa, geren janggisa, ba na i hafasa be gaifi, guwangsi nan ning fui hoton i dung yoo miyoo i dolo isabufi doroloho. ambasa juwe galai hafasa iskunde1) hengkilehe. aniyai ucuri jakūn gūsai janggin cooha gemu jeme omime, bayara uksin i beye giyade, hehe adali miyamifi, doo yang ke ucun ba uculeme efihe. mini dolo sakdasa be gūnime ališaha."

하고 太廟에서는 男莽式禮를 쓴다'고 하였다.[25] 지금도 만주족 집성촌에서는 秧歌를 부른다.

> 4월 초하루에 우리 잘란(jalan)의 內府佐領에 속한 호샨(hoošan, 豪山)의 말구종이 다른 사람이 죽인 백성의 쇠고기를 나누어서 가져올 때 장군의 친위 甲兵에게 붙잡혀서, 장군은 나를 兵營長에게 데려가서 천막에 앉히고 좋은 말로 훈계해서 우리는 부끄러웠다. 죄를 논하고, 간두하이(ganduhai, 干都海)는 3개월의 俸祿을 나와 委署章京 단다이(dandai, 丹岱)는 6개월 봉록을 삭감하고, 보쇼쿠(bošokū)는 70대, 말구종의 우두머리인 호샨(hoošan, 豪山)은 80대, 말구종은 100대를 때렸다.[26]

曾壽가 속한 잘란(jalan)의 內府佐領 소속의 말구종[27]이 어느 날 백성의 쇠고기를 나누어서 가져오다가 장군의 친위 갑병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曾壽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급자들은 봉록을 삭감 당하게 되고, 보쇼쿠(bošokū)는 70대, 말구종의 우두머리인 호샨(hoošan, 豪山)은 80대, 쇠고기를 훔친 말구종은 100대를 때리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八旗軍이 대단히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6월 초이틀에 망(mang)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일부러 천천히 매일 30리씩만

---

25) ≪寧古塔紀略≫, "滿洲人家歌舞, 名曰莽式. 有男莽式, 女莽式. 兩人相對而舞, 旁人拍手而歌. 每行於新歲或喜慶之時, 上於太廟中用男莽式禮."

26) 상게서, 康熙 19년(1680) 4월 1일, "duin biyai ice de, mini jalan i booju nirui hoošan i kutule, gūwa i waha irgen i ihan i yali be dendefi gajirede, jiyanggiyūn i gocika uksin de nambufi, jiyanggiyūn, mimbe, kūwaran i da be gamafi, cacari de tebufi, sain gisun i necihiyere de, be yertehe. weile gisurefi, ganduhai ilan biyai funglu, mimbe, araha janggin dandai be ninggun biyai funglu faitame, bošokū be nadanju, kutule i ejen hoošan be jakūnju, kutule be tanggū tantaha."

27) 말구종 : '말구종'은 우리말로 '거들'이라고 하는데, 만주어로는 쿠툴러(kutule, 庫圖勒・孤獨立)'라고 하며, 跟馬人・廝卒・控馬奴・跟役 등으로 한역한다. 주로 八旗 병사의 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투병으로도 기능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팔기 1명당 노비 4-5명이 쿠툴러로서 따라붙는데, 후대로 가면 쿠툴러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년병인 '시단(sidan, 西丹)'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黑龍江外紀≫, 旗下未入伍者, 號西丹, 遇有征伐不得與, 多充庫圖勒.) 이 일기를 쓴 曾壽는 당시에 '잘란 장긴(jalan i janggin, 參領)'의 직급이었는데, 모두 8명의 쿠툴러와 말 20필을 데리고 출정하였다.

> 가고, 沙帽山을 지나서 머물렀다. 簡親王의 군사가 雒容縣에 다다랐다고 보고하였다. 초사흘에 大橋에 머무르고, 尙板鄕의 土司가 투항해 와서 里村의 토사가 도적에게 귀순했다 하고 보고하여 綠旗를 보내어 포를 쏘아 파괴시켰다. 이틀을 쉬는 동안 鑲白旗의 호군 한 명이 혼절하고서, '關羽 신이 내렸다'고 하니 망(mang) 장군이 가서 절하며 이유를 물었다. 나는 이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본래 장군은 관우 신의 초상을 가지고 다니며 매일 절한다.[28]

關羽는 당나라 때부터 武神으로 존숭되어 오다가, 1614년 명나라가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고 封號한 뒤부터 민간에 널리 유포되게 되었다. 그 뒤 청나라가 처음 군사를 일으킨 이래로 關帝의 신령스런 도움이 있었다 하여 황실의 수호신으로 숭배된 뒤부터는 關聖廟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 뒤 점차 민간에서는 관제를 사로잡은 위나라 曹操가 금은보화를 주어 환대했으나, 밤에 그것들을 남기고 유비의 부인만을 보호하며 떠났던 사실에 근거하여 武財神, 재난을 사전에 알리는 신, 무례를 범하지 않는 신, 정성으로 빌면 죽은 자를 되살리는 신, 지옥의 장관, 天界 남대문의 수호신 등으로 숭배되었다.[29]

이 당시에도 이미 關羽를 숭배하는 신앙이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절한 호군의 경우는 신 내림을 받은 薩滿으로 추정되며, 관우 신의 초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절하는 장군의 모습에서 복을 바라고 전쟁에서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

28) 상게서, 康熙 19년(1680) 6월 2일, "ninggun biyai ice juwe de, jiyanggiyūn mang cooha be gaifi jortai elhešeme, inenggidari damu gūsin ba yabume, ša moo san be dulefi tataha. kemungge cin wang ni cooha be loo žung hiyan de isinaha seme boolaha. ice ilan de da kiyoo de tatafi, šang ban hiyang ni tusy dahame jifi, li gašan i tusy be hūlha de dayafi bihe seme alafi, niowanggiyan tu be unggifi, poo sindame efulebuhe. juwe inenggi indehede, kubuhe šanggiyan i bayara emken beye kūwaliyapi, guwan mafa wasinjiha seme, jiyanggiyūn mang genefi, hengkileme turgun be fonjiha. bi ere ganio kai sehe, daci jiyanggiyūn guwan enduri nirugan be gaifi yabume, inenggidari hengkilembi."

29) ≪민족문화대백과사전≫, <關帝信仰>조 참조.

7월 24일에 護軍統領 어허너(ehene, 額赫訥)의 제3대와 都統 라사이(lasai, 喇賽)의 제4대의 군사가 이르고, 우리 왕의 일로 인하여 라사이, 어허너, 마시타이(masitai, 馬西泰), 劉賢忠 등 旗의 章京들을 모이게 하고, 모자의 술을 자르고, 3일을 애도하며 밤을 새웠다.[30]

예문에서의 '우리 왕'은 簡親王 라부(Labu, 喇布)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簡親王 라부는 揚威大將軍에 임명되어 토벌에 참가하지만, 南昌에 주둔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을 거듭하다가 柳州에서 馬承蔭의 반란군을 물리치고, 대장군 라이타(laita, 賴塔)와 함께 雲南으로 진공한다. 그러나 강희 20년(1681)에 북경으로 소환되고 같은 해 10월에 죽게 되는데[31], 簡親王 라부가 죽었다는 소식[32]을 듣고는 같은 旗의 章京들이 모여 모자의 술을 자르고, 3일을 애도하며 밤을 새웠다는 것이다.

八旗 조직의 최고 정점에는 황제와 諸王인 버이러(beile, 貝勒)가 위치하는데, 황제 자신이 上三旗를 통솔하고, 제왕이 下五旗를 통솔하였다. 曾壽가 원래 만주팔기 正紅旗人이었던 것[33]으로 보아 簡親王은 正紅旗를 통솔하던 최고 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大將軍에 임명되어 耿精忠의 반란을 평정한 康親王 기여수(giyesu, 傑書)[34]가 이끄는 부대에 소속되어 삼번의 난 토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5]

8월 29일에 대장군은 여러 병영의 장과 章京들을 거느리고, 소 8마리를 죽여 흙으로 크게 만든 단에 제물을 바치며, 큰 깃발에 절하고 고동을 불면서 제사지내고

30) 상게서, 康熙 21년(1682) 7월 24일, "orin duide tui janggin ehene i ilaci meyen, gūsai ejen lasai i duici meyen i cooha isinjifi, musei wang ni baita i turgunde, lasai, ehene, masitai, lio hiyan jung se gūsai janggisa be isabufi, boro i sorson be gaifi, ilan inenggi gasame dobori duliha."
31) 각주 2)번 참조.
32) ≪淸史稿≫에 簡親王 라부가 죽은 것은 강희 20년(1681) 10월로 되어 있어 일기의 기록과 차이가 보인다. 당시의 전쟁 상황과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늦게 소식을 접하였거나, 기록상의 오류 등 다양하게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3) 吳忠匡 등 교정, ≪滿漢名臣傳≫,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703쪽 참조.
34) 각주 4)번 참조.
35) 각주 5)번 참조.

고기를 묻었다. 군사가 출발하여 50리를 가서 王西坡에 영을 세웠다.[36]

운남성의 반란군을 평정한 후에 전체 군사는 모두 여덟 부대로 나뉘어 북경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荊州에 집결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洞庭湖로 들어가는 강물이 어지럽게 만나는 곳으로 6월 20일 경부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달을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8월 29일에 북경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대장군이 소 8마리를 죽여 흙으로 크게 만든 단에 제물로 바치며 제사지낸 것을 기록하였다. 군대가 이동함에 큰 변고가 없기를 산천에 제사지낸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는 만주문자로 기록된 일기로서 강희 19년(1680) 정월 초하루부터 강희 21년(1682) 10월 중순까지 삼번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체 일기의 내용을 먼저 시간 순서를 따라 주인공인 曾壽가 위치한 공간과 함께 개략하였고, 이어서 일기의 내용 가운데에서 주요 전투 상황을 묘사한 부분과 八旗軍의 병영 생활, 滿州族의 풍속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희 19년(1680)은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29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3월 6일에 賓州의 知州 馬承蔭이 다시 배반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과 망기투(manggitu, 莽依圖) 장군이 사망한 내용, 그리고 운남을 공격하러 가기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고, 11월 15일에 南寧府를 출발하여 西隆州까지 가는 동

36) 상게서, 康熙 21년(1682) 8월 29일, "orin uyun de amba jiyanggiyūn, geren kūwaran i da, janggisa be gaifi, jakūn igan be wafi, boigon mutubume araha terkin de dobofi, tu de hengkileme burdeme wecefi, yali be umbuha. cooha jurafi susai ba yabufi, wang sy po de ing iliha."

www.kci.go.kr

안 일어난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강희 20년(1681)은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운남성으로 진격하면서 黃草坝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내용과 운남성을 포위한 채 약 9개월 동안 대치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오세번의 자살로 적이 항복한 후의 처리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운남성을 함락하기 위해 포위한 채 적과 대치하는 상황과 그 과정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

강희 21년(1682)은 정월부터 10월 12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월 6일에 운남성을 출발하여 북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주위의 풍광과 경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 북경에 가까워질수록 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 황제가 직접 대신들을 거느리고, 長辛店에까지 나와 군사를 맞이하는 모습과 공과와 직급에 따라 포상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와 같이 삼번의 난 토벌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淸史稿≫나 ≪淸實錄≫과 같은 역사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주요 전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賓州의 陶登에서 馬承蔭군을 맞아 싸운 전투나 曲靖府와 羅平州를 연결하는 요지인 黃草坝를 빼앗기 위한 전투, 그리고 운남성을 에워싸기 전에 치룬 전투 등은 실제로 눈앞에서 전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여 읽는 사람이 전장에 직접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여 흥미를 북돋우게 한다. 일기라는 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일기를 기록한 曾壽의 문학적 표현력에 기인하는 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八旗軍의 병영 생활과 풍속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일기가 쓰인 시점이 康熙帝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www.kci.go.kr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다. 필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견문과 학식이 부족하여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앞서 제시한 내용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보다 깊이가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西淸(淸) 撰, ≪黑龍江外記≫(影印本), 台北: 廣文書局, 民國57(1968).
吳振臣(淸), ≪寧古塔記略≫(影印本), 台北: 藝文印書館, 民國59(1970).
≪淸實錄・聖祖仁皇帝實錄≫(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1985.
曾壽著・季永海譯注, ≪隨軍紀行譯注≫,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7.
中國國史館・國立故宮博物院, ≪淸史稿校註≫, 台北: 國史館, 民國77(1988).
吳忠匡 等 校訂, ≪滿漢名臣傳≫,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林鐵鈞・史松主編, ≪淸史編年: 第二卷 康熙朝 上≫,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임계순, ≪청사: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2004.
神田信夫, ≪淸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
曾壽 저・최동권 외 역,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 서울: 博文社, 2012.
申相賢,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에 대하여>, ≪만주 팔기 曾壽의 일기≫, 서울: 博文社, 2012.
Nicola Di Cosmo, Diary of a Manchu Soldi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My Service in the Army, by Dzengšeo(Routledge Studies in the Early History of Asia), Routledge, 2006.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이트 http://www.encykorea.com/

< 中文摘要 >

www.kci.go.kr

本文是對參加平定"三藩之亂"的曾壽撰寫的≪滿洲八旗曾壽的日記≫的研究。本文先考察了該日記的內容及結構, 而後與其它漢文史料相結合做了比較, 核實幷考察了主要戰役中的

實際情況, 幷還考察了八旗淸軍的軍營生活及滿族的習俗。

≪滿洲八旗曾壽的日記≫由滿文寫成, 原題爲≪beye i cooha bade yabuha babe ejehe bithe (我在戰場上的經歷)”。該日記一共有四卷, 但現存的只有最後一卷。其主要內容是歸屬于八旗軍的曾壽 (?～1721, 亦称增壽) 參加鎭壓三藩之亂過程中的經歷, 該文眞實地記录了自1680年1月31日至1682年11月10日之間發生的戰況及軍情, 自己的感懷等。

本文先按照時間的順序概括叙述了主人公曾壽所處的環境, 而后對日記中描寫的主要戰役及八旗軍的軍營生活、滿族的習俗等進行了硏究。經此, 我們可以得出以下結論。

第一、曾壽對在≪淸史稿≫、≪淸實錄≫等史料中無法查到的主要戰役, 描繪得生動、詳細。

第二、載有衆多與八旗軍軍營生活及民族習俗相關的資料。考慮到該日記的書寫的時間是康熙年間, 因此經此可以了解當時的生活樣貌。

關鍵詞: 三藩之亂, 滿洲八旗, 曾壽, 八旗軍軍營, 滿族習俗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3. 27.	2014. 4. 23.	2014. 5. 8.	2014. 5. 24.	2014. 5. 31.

www.kci.go.kr